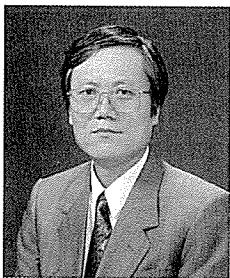


사회변화와 인간유형

바람직한 인간형에 대한 변화는 사회변화를 나타낸다고 볼 때
80년대를 전후한 사회적성격의 변화는 농경사회에서 굴뚝사회라고 하는
공업사회로 바뀌었고 그 이후는 지식기술사회·정보화사회로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농경사회 굴뚝사회에서는 절약하고 황소처럼 일하는 사람이
바람직한 인간형이었다면 지식기술사회·정밀화사회에서는 절약보다는
창의력과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로 승부를 거는 사람이어야
성공의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다.



盧化俊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행정학>

초 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되는데, 지난 1950년대는 경제사정이 어려웠기도 했지만 그때 반훈(班訓)이 '물 한방울이라도 아껴쓰자'였다. 사회적 여건과 어릴 때부터의 정신적 교육훈련은 내핍과 절약을 높은 사회적 가치로 존중하게 되었고 이때에 자란 사람들 가운데에는 내핍과 절약형의 사람들이 다수를 점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어디 그뿐인가. 그 당시 부모님이나 윗사람들 앞에서 말대꾸를

하거나 조잘대기를 잘 하면 건방지거나 가벼운 사람으로 치부되고 그저 말없이 묵묵히 일하면 과묵하고 침착한 사람으로 간주되어 무언가이 다음에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칭찬을 받곤 했던 것이다. 이러한 교육과 사회화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나아가서는 본인의 발전과 사회발전에 보탬이 될 것으로 간주되는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유형이 형성되어 왔으며, 사람들 사이에 바람직한 인간형의 전형(典型)으로써 받아들여져 왔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에는 온갖 유형의 사람들이 섞여 있다. 사람들의 얼굴이 모두 다르듯이 세상에 모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성격 또한 서로 다르다. 심지어 한 부모에서 태어난 형제들조차도 그 성격이 마치 남남인 것 같이 다른 경우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

개개인들의 성격들을 미세하게 관찰한다면 하나 하나가 차이가 있겠으나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몇 가지로 분류해 놓고 보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유형이 나오게 마련이다. 말없이 묵묵히 일만 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요란하게 떠들기만하고 일에는 관심이 없는 유형의 사람들도 있다.

내핍과 절약이 몸에 배서 종이 한 장, 볼펜 한 자루라도 아껴쓰려는 절약이 몸에 배어 있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피서는 해외의 유명한 휴양지로 가야만 살 맛이 난다는 쓰고 보자는 유형의 사람들도 있다. 그런가 하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선 일을 저질러 놓고 뒷일은 나중에 생각하는 유형의 사람들도 있다.

그 유형이야 어떻게 구분하든 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은 서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피해를 주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다. 그러나 어느 사회나 피해를 주는 유형의 사람들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유형의 사람들을 그 사회에 더 많이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의 반훈과 같은 교육이나 제도적 장치, 사회적 보상메커니즘 같은 것들은 그러한 노력의 표현들이라 할 수 있으리라.

얼마전 우연한 기회에 모 회사의 사보를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실패하는 셀러리맨 7가지 유형'이라고 하는 흥미있는 내용이 있었다. 그 7

가지 인간유형들 가운데 6가지는 바로 우리 사회가 지난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인간유형으로 떠받들던 인간유형들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회변화가 있었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다.

그 주된 내용은 ‘말없이 묵묵히 일하면 틀림없이 망한다’ ‘내핍 절약밖에 모르면 반드시 실패한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면 망한다’ ‘상사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서는 절대 실패한다’ ‘웃지 않는 자는 실패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사보에서 반드시 실패한다고 단언하고 있는 인간유형들은 지난 80년 대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바람직한 인간유형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전형적인 인간유형으로 권장되지 않았던가.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 같은 학자는 50년이면 세상이 완전히 바뀐다고 하였지만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바람직한 인간형에 대한 변화는 그저 완전히 변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전도(轉倒)되었다고 함이 옳을 것이다.

농경·공업사회선 근현성 존중

바람직한 인간형에 대한 변화는 사회변화를 나타낸다고 볼 때, 그러면 80년대를 전후한 사회적 성격의 변화는 무엇인가.

물론 80년대 이전의 사회도 꾸준히 변화하였지만 그 변화는 농경사회에서 굴뚝사회라고 하는 공업사회로의 변화였다고 한다면 80년대 이후의 사회변화는 굴뚝사회에서 지식기술사회·정보화사회로의 변화로 특징을 수 있는 것이다.

정보사회선 창의력·개성 우선

농경사회나 굴뚝사회에서는 그저 황소같이 묵묵히 일하는 사람, 부족한 자원을 어떻게든지 아껴서 쪼개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 매사에 신중을 기하는 사람, 딴 생각없이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자세로 사는 사람들이 변화가 느리고 표준화·규격화된 대량생산의 사회성격에 가장 부합되었기 때문에 선호된 인간유형으로 자리잡지 않았을까. 그러나 지식기술사회·정보사회에서는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고, 절약보다는 창의력과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에 의하여 승부를 걸어야 하며, 안전보다는 모험적 투자와 남보다 한 발 앞서 나가는 선두주자가 되어야 성공의 가능성이 높다. 또한 상사의 명령도 합리적인지를 따져서 자기의 주장을 펼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리고 표준형의 인간보다 자기만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독특한 스타일의 사람이 될 때 자기도 발전하고 조직도 발전 할 수 있는 사회로 사회의 성격 자체가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선호되는 인간유형도 이러한 사회적 성격 변화에 따라 변화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사회적 성격 변화에 따라 선호되는 인간형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지만 사회의 성격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건 우리 사회에 변화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인간형이 있으니 바로 조직의 직위나 자리를 감투로 보는 인간유형이다. 이러한 인간유형은 변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농공사회에서 지식기술사회·정보화사회로 전환되고 있는데도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것같은 감이 든다. 이러한 생각은 누구나 어떤 자리에 앉으면 다 해낼 수 있다는 지나친 평등주의 의식에 기인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보다는 어떤 자리를 일하는 자리, 다시 말하면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함으로써 자기가 평소 생각해왔던 이상과 꿈을 실현하는 자리, 자아실현을 위한 일하는 자리로 보지 않는데 기인하는 것 같다.

지난해 봄 평소에 존경해오던 은사님 한 분께서 고희(古稀)기념 회고록을 내셨는데 회고록에 쓰신 내용 가운데 “인생은 일이더라”라는 구절이 있었다. 그 글을 읽고 그 내용에 큰 공감과 아울러 깊은 감명을 받았는데 그 분의 살아오신 과정과 관계(官界), 학계에서 이루어 놓으신 많은 업적을 생각할 때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직위나 자리에 대한 자세가 어떠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새삼 생각하게 하였다. 특히 선거철만 되면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가 성취하고자 하는 일의 내용에 자기가 과연 걸맞는 경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들을 볼 때 역겨움조차 느끼게 한다. 우리 사회도 어떤 조직의 자리나 사회적 지위가 단지 개인의 명예욕이나 공명심을 충족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일하는 자리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확산될 때 복잡하게 얹혀있는 사회조직들이 원활하게 작동되고 발전되어 나갈 것이라는 것이 한 두 사람의 생각만은 아닐 것이다. 각종 사회조직의 중요한 자리를 이 ‘인생은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유형의 사람들에 의하여 채워지고 움직여질 때 우리 사회도 한 단계 더 성숙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